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입니다.

오늘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 및 임원 여러분께서 바쁜중에서도 학술토론회를 위해 대한민국 부산을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 회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991년부터 우호친선관계를 위해 교류가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 후 세정 전반에 대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양 회 간에 관심 있는 테마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며 한층 더 성숙하고 충실한 친선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이 학술토론회는 매년 중요한 테마를 정하여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일본의 마이넘버제도를 비교하고 검토함으로써 양국의 조세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가 양 회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깊게 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 및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최상곤

## 인 사 말 씀

오늘 최상곤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과 이곳 부산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또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님들께서는 제12회 학술토론회 개최에 즈음하여, 그 준비를 위해 각별한 수고를 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긴끼세리사회와의 우호관계는 1991년도에 시작되었고, 2005년도부터는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보다 충실한 친선관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 학술토론회는 매회 중요한 테마를 연구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국 및 일본에서의 번호제도」가 테마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1월부터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에 한정된 마이넘버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에 도입된 귀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일본의 마이넘버제도에 대하여, 특징이나 실무상 취급에 대하여 비교검토 해봄으로서,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귀국의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하여, 충분히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은 물론, 세계의 중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양국의 상호이해를 보다 깊게 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회에서도 노력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가 양 회간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더 깊게 하고 뜻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끝으로 귀 회가 더욱 더 발전하시고 최상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융성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6년 11월 24일

긴끼세리사회  
회장 아사다 츠네히로